영축총림 新 역사서 내년 발간

통도사, 〈신편 통도사 사지〉 중간 발표회

통도사 창건부터 현재까지
역사와 신앙 중심사상 정리
총망라한 8편 및 부록 담겨
"문화재 가치 위상 올릴 터"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지난 8월 영축총림 통도사의 역사와 유·무형문화재 가치를 연구하고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문을 연 영축문화연구원이 〈신편 통도사 사지〉 발간에 앞서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고 방향과 편집 구성 등을 발표했다.

통도사(주지 현문)는 12월 7일 통도사성보박물관 문화센터에서 '신편 통도사 사지 발간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신편 통도사 사지〉는 통도사의 역사는 물론 유·무형문화재, 역대 고승 및 재가 신행단체까지 통도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빠짐없이 담는다.

편집방향은 먼저 통도사의 역사와 신앙 그리고 그 중심 사상을 바탕으로 한다. 특히 사리, 계율, 문수, 화엄 등 주요 사상을 정립한다. 아울러 통도사의 현재는 어떻게 구성되고 이루어졌는지 정리하고 역대 조사의 이야기도 담을 예정이다.

중간발표에서 윤영해(영축문화연구원 수석연구원) 교수는 〈신편 통도사 사지〉 내용과 집필자를 소개하고 책의 구성을 안내했다. 신편 통도사지는 총 8편으로 구성된다.

1편은 통도사의 역사다. 내용은 위치와 창건 이념, 사리신앙, 계율신앙, 문수신앙 화엄신앙을 포함한 창건과 사상, 중창과 현재 역사를 설명한다. 2편은 통도사의 전각과 말사다. 이 장에서는 통도사의 가람배치도, 금강계단 등 상(上) 노전영역, 대광명전이 있는 중(中) 노전영역, 영산전 이후 영역인 하(下) 노전영역을 안내한다. 아울러 암자는 산내암자와 말사 모두 담길 예정이다.

3편은 통도사 역대 고승에 대한 내용이다. 신라시대부터 근대와 현대에 이르기까지 고승의 발자취를 엮어 설명한다. 4편은 통도사 유산이다. 통도사의 유형문화재를 포함해 무형유산까지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통도사의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말사 문화재도 모두 정리하며 특히 일상의례와 예불, 발우공양, 삼보이운과 낙화, 학춤까지 무형문화재가 가진 가치를 알린다. 아울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산지승원인 통도사의 가치도 소개한다.

5편은 통도사의 연중법회다.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정초 보궁기도와 출가재일, 열반재일, 보살계산림, 부처님오신날, 단오재 등 통도사에서 진행하는 행사와 주요 법회를 설명한다. 6편은 통도사의 신행단체와 관련기관이 담긴다. 통도사에 소속된 신행단체와 전법단체, 학교법인, 복지법인, 재단법인, 영농법인 등을 소개한다.

7편에서는 통도사의 삼보정재인 토지와 경제부분을 소개한다. 토지뿐 아니라 산림, 산물, 갑계 활동까지 상세하게 담는다. 8편은 통도사 기록이다. 사료인 현판과 주련, 기문을 포함하며 역사 기록인 정사와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 야사, 암각까지 총망라한다.

부록은 역사 연표와 고승 법맥 및 중요사진을 담아 안내할 예정이다. 영축문화연구원은 현재 6개월 동안 활동하며 얻은 성과도 소개했다. 먼저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과 중국, 일본 등 각지에 소장된 사적기 판본을 확인했으며, 1900년대 해담치익 스님의 신편 사적기와 1960년대 운허 스님의 사적기도 확인했다.

아울러 고사적기에서 사리 이운 경로와 각 전각의 변천 과정도 확인했으며 해담 스님이 기록한 통도사의 두 가지 율맥도 확보했다. 동국대 학술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필사본 사적기 번역 각주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동시에 연구위원들이 〈신편 통도사 사지〉의 각 내용을 분담해 작성키로 했다. 또한 서울 흥천사, 북한의 태백산 보현사 등 여러 곳에서 통도사 사리가 이운됐음을 왕조실록과 보현사 사리비문을 통해 확인했다.

〈신편 통도사 사지〉 발간 중간 발표회는 연구위원 위촉식도 진행했다. 새 연구위원은 덕문 스님, 영산 스님, 혜일 스님이다. 집필자는 △우현 스님(자장암 한주) △자현 스님(중앙승가대교수) △송천 스님(통도사성보박물관장) △윤영해 교수(동국대) △이철헌 교수(동국대) △한정호 교수(동국대미술사학) △신용철 관장(양산시립박물관) △김순석 연구위원(한국국학진흥원) △최두헌 실장(통도사성보박물관)이다. 발표회에서는 집필자 중 한 명인 자현 스님(중앙승가대교수)이 '통도사의 창건에 얽힌 새로운 사실 규명'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주지 현문 스님은 "문화재의 가치를 설명하고 특히 중요성이 전달되지 못한 무형문화재를 더욱 가치 있게 조명하고자 한다"며 "통도사 내 삼보이운, 염불 등 보이지 않는 무형문화재가 존재한다. 보완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 연구한다면 큰 성과물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편 통도사 사지〉 1차 발간은 2020년 10월 25일 개산대재일로 예정하고 있다.

생명운동 '낙동강상생포럼' 창립

강서불교연합회장 운암 스님과 윤종현 회장 등 뜻 모아

불교사상을 근본으로 생명상생 실천운동을 전개할 낙동강상생포럼이 탄생했다.

낙동강상생포럼(회장 윤종현)은 12월 5일 부산 명지 농협본점 2층 대강당에서 '낙동강상생포럼' 창립대회를 개최했다.

낙동강상생포럼은 앞으로 생명 가치를 강조하고 지역사회의 뜻과 의견을 수렴하는 구심점 역할을 담당한다. 아울러 환경문제 파악 및 해결 방안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방향성을 제시해 생명상생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시민들과 공감하고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맡는다.

창립대회에는 강서구불교연합회장 운암 스님, 범어사 승가대학장 정한 스님, 윤종현 신임회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창립대회는 1부 창립총회가 열렸으며 정관 심의 및 회장과 임원단 선출이 진행됐다. 회장은 윤종현 신임회장(前 부산시의회 의원)이 선출됐으며 임원 선출은 회장에게 일임됐다. 증명법사는 강서구불교연합회장 운암 스님이 담당하며, 지도법사로는 강서구불교연합회 회원 스님들이 활동할 예정이다. 2부 창립출범식에서는 개회선언 및 내빈 소개가 이어졌으며 신임회장 인사말과 축사 및 격려사가 진행됐다.

윤종현 회장은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포럼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프라를 구축하고 포럼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생명과 환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낙동강상생포럼 창립대회에 참여한 사부대중이 생명상생운동 실천을 위한 다짐을 하고 있다.

증명법사 운암 스님은 "개인화, 양극화, 전통문화의 상실, 자연환경의 파괴 등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은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 삶이 무너진 것에 그 원인이 있다"며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삶의 방향은 상생 실천이다. 상생을 위해 앞으로 낙동강상생포럼 회원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낙동강상생포럼은 강서구불교연합회장 운암 스님이 제안해 2019년 9월 19일 윤종현 발기인 외 31명이 낙동강상생포럼 발기인을 구성했다. 5차례에 걸쳐 사전 준비회의를 걸쳐 지난 9월 26일 발기인대회를 봉행했으며 (가칭)낙동강상생포럼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창립준비회의를 진행하고 12월 5일 창립대회를 개최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청소년 학업에 차별 없길"

광주 한마음선원, 서구청에 책가방 후원금 기탁

빛고을나눔나무는 12월 10일 광주 서구청(청장 서대석)을 방문해 서구지역 아이들을 위한 드림스타트 아동 책가방 후원금 300만원을 전달했다.〈사진〉 후원금은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혜월)의 지정기탁으로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상임이사 보응 스님, 소원정사 주지 도계 스님, 김용섭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신도회장과 서대석 서구청장이 참석했다. 이날 전달한 기금은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등 총 50명을 위해 사용된다.

보응 스님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누릴 수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서대석 서구청장은 "불교계의 따뜻한 마음이 아이들에게 정성껏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온정 담아 한겨울 덥힌 연탄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연탄 1만장 동구서 나눠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회장 박수관)는 12월 5일 부산 동구 영초윗길 일대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사진〉 신도회는 동구 관내 주민에게 연탄 1만장을 지원했다. 행사에서는 부산총연합신도회 회원 20여 명이 칼바람 부는 산동네를 방문해 직접 연탄 500장을 나르며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

박수관 회장을 비롯해 정창교 수석부회장 등 현장에 나온 회원들은 연탄을 서로에게 전해주며 "추운 겨울 이웃을 위해 나눌 수 있어 마음의 훈훈해진다"고 소감을 밝혔다.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는 매년 겨울 김장과 연탄나눔으로 소외 이웃을 후원하고 있다. 지난해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부산진구와 금정구 일대에 사랑의 연탄 2만7800장을 지원했으며, 김장과 쌀을 정기적으로 나누고 있다. 올해도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하는 등 봉사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수관 회장은 "겨울은 사계절 중 하나이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는 분들에게는 혹독할 수밖에 없다"며 "소외 계층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이 자리에 섰다. 함께 해준 모든 회원들에게도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제29회 향기로운 山海原 문화상 시상

창원시불교연합회 "수상자들, 그늘진 사회 밝혀주길"

창원시불교연합회(회장 월도)는 12월 9일 '제29회 산해원문화상' 시상식을 창원 그랜드머큐어 앰배서더호텔에서 개최했다.〈사진〉 시상식에는 창원시불교연합회장 월도 스님과 회원스님을 비롯해 허성무 창원시장, 문화예술인, 언론인, 수상자 가족들이 동참해 축하했다.

산해원 문화상은 특별상 최위승 무학그룹 명예회장, 문학상 이상옥 한국디카시 연구소 대표, 예술상 장기홍 지휘자, 언론상 이수경 경남도민일보 자치행정부 국장에게 돌아갔다. 산해원 문화상은 문화예술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1991년 경남지역불교계가 제정한 상이다.

창원시불교연합회장 월도 스님은 "경기침체로 삶에 지친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하나로 화합된 힘을 보태는 우리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사회는 믿음과 자비가 필요하다. 그늘진 사회를 밝히는 수상자들의 활동을 높이 평가한다"고 축하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